

# 영남지방 裨補의 起源과 擴散에 관한 一考察

최 원 석\*

영남지방 비보의 기원은 가야와 신라의 불교적 비보사탑에서 비롯하며, 고려 및 조선조를 거치면서 國都에서 풍수적 비보의 성행은 영남지방 비보경관의 구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비보의 확산양상은, 조선 초기까지는 首位의 空間的 位階를 지니는 國都(개성·한양)를 裨補核心地로 하여 周邊地域의 府·牧·大都護府 등 大邑의 次位中心地로 확산되고, 大邑이 다시 裨補中心地가 되어 순차적으로 인근 郡縣 단위의 中小 邑治로 비보가 확산되었다. 이윽고 조선 중기 이후 在地士族들의 촌락 개척과 맞물려 邑治 외곽의 주요 士族의 주거지로 비보가 파급되어 나갔다.

주요어 : 비보, 불교비보, 풍수비보, 비보사탑, 비보경관, 확산

## I. 머리말

사람들은 누구나 보다 좋은 주거환경을 가꾸어 살고자 한다. 동아시아에는 주거지의 자연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자연보완', 곧 자연과 조화롭게 지리적 조건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상적 주거환경(이상향)을 이루려는 독특한 지리사상 및 문화전통이 있었으니, 이것을 '裨補'라고 한다.<sup>1)</sup> 비보는 전통 취락에 있어 대표적인 공간계획 및 구성원리일 뿐만 아니라 문화경관으로서 중요한 연구 의의가 있다.

한국의 비보설은 道詵(827~898)을 宗祖로 삼으며<sup>2)</sup>, 비보설의 역사적 기원은 裨補寺塔說에 있는데, 비보사탑설이란 산천의 順逆을 살펴 地德의 衰處나 逆處에 사찰·탑·불상을 세워 자연조건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비보는 역사적 정황과 지역적 조건에 따라 변모해 왔고 다양화되었으며, 그 유형에는 사탑·숲·조산·장승·못 등의 可視的인 형태와 지명·儀禮·놀이 등의 非可視的인 형태가 있다. 한국에는 이러한 비보적 문화경관이 취락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본 연구지역인 영남지방에도 다양한 형태 및 기능을 지닌 비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

게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sup>3)</sup>

영남지방 비보의 기원과 확산을 비보 성격의 견지에서 볼 때 불교적 비보와 풍수적 비보로 구분된다.<sup>4)</sup> 불교적 비보는 경주를 중심으로 비보사탑이 배치되고 지방으로 확산되다가 고려조에 개경 위주로 재편되었다. 이것은 고려 말부터 衰退하기 시작하여 조선조 이후 排佛 정책으로 인하여 불교신앙적 기능은 없어지고 비보적 기능만 남겨나 이것도 점차 풍수적 비보로 대체되었다. 풍수적 비보는 고려의 개경과 조선의 한양이 중심이 된 지방제도 운용에 따라 國都를 모델로 하여 영남지방의 大邑 爲主로 비보물이 설치되다가 인근 中小邑과 村落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논지로 본 연구는, 영남지방의 취락에서 흔히 보이는 비보경관이 어디에서 기원하였으며 그것이 어떤 역사적 과정에 의하여 확산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II. 영남지방 비보의 기원

### 1. 불교 비보

\*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시간강사(bibocws@hotmail.com)

1) 가야·신라의 불교비보

영남지방 비보의 불교적 기원으로는 가야의 비보사탑을 먼저 거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가야불교가 불교사적으로 가장 연대가 앞서기도 할 뿐더러, 신라 불교의 한줄기 원류를 이루고 있고, 또한 비보사탑의 흔적도 신라보다 가야에서 먼저 나타났기 때문이다. 『三國遺事』에 의하면 이미 1세기에 허황후에 의해서 남방불교가 전래되었고, 같은 시기에 파사석탑이라는 최초의 비보탑이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해의 首露王代에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세운 밀양의 萬魚寺를 비롯한 사찰들이 창건되었으며, 이어서 5세기 경인 452년에 王后寺를 비롯한 몇몇의 護國國刹이 창건되어 나라의 복을 빌고 倭國을 진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527년에 비로소 불교를 국가적으로 공인한 신라보다 그 시기가 훨씬 앞서는 것이다.

가야에 전래된 비보사탑의 기원은 48년, 김수로 왕의 왕비인 허황옥이, 아유타국에서부터 바다의 파도신을 진압할 목적으로 배에 싣고 들어온 파사석탑이다. 『三國遺事』(卷3, 塔像4, 金官城婆娑石塔)의 관련 내용을 보면, 허황후가 바다를 건너 동으로 향하려 하다가 파도신의 노여움을 만나서 돌아오니 부왕이 탑을 싣고 가게 하여 무사히 김해의 남쪽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一然도 파사석탑에 대해, “厭을 실은 배의 깃발 가볍게도 날린다. 신령께 빌어 파도에 편안하기를…”이라고 하면서 讚을 붙이고 있는데, 이는 파사석탑이 바다의 신을 다스리는 厭勝의 기능을 하는 탑으로 인식한 증거다.

가야의 領內에 설치된 것으로서 자연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조성된 비보사찰의 기원에는 밀양의 萬魚山 萬魚寺가 있다. 파사석탑이 國外에서 전래된 최초의 비보사탑이라면 만어사는 가야권에 처음 배치된 비보사찰이 되는 셈이다.

『三國遺事』 魚山佛影條의 관련 내용에 의하면 만어사는, 가야 경내의 玉池에 살고 있는 毒龍과 만어산에 다섯 나찰녀가 서로 왕래·교통하여, 번개와 비를 때때로 내림으로써 4년 동안이나 오곡이 제대로 여물지 않고 자연재해를 유발하므로 수로왕이 만어산의 惡鬼(나찰녀)를 鎮壓하기 위해 세운 비보사찰이라는 것이다. 현지답사에 기초하여 萬魚寺의

창건 동기를 살펴보면, 사찰 앞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흑갈색 너덜바위가 나찰이 사는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경관으로 知覺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는 7세기에 들어서야 慈藏의 주장으로 건립된 황룡사구층탑을 위시한 호국비보탑이 등장하고 있다. 『三國遺事』 所在 신라의 진호사탑으로는 황룡사구층탑 외에도 용장사삼층석탑·사천왕사·감은사 등이 있다. 진호사탑은 그 기능상 자연재해의 방지, 왕경수호(황룡사구층탑, 사천왕사, 용장사석탑 등), 外侵으로 인한 국토방어(감은사, 원원사) 등을 목적으로 조성한 호국사탑으로서, 왕경의 중심부의 도성 곁에 배치되거나(황룡사구층탑, 사천왕사), 지리적 혹은 전략적인 요충지에 입지하였는데 감은사는 해안 진입로에, 願遠寺는 陸路의 관문에 배치되었다.

이상과 같은 유형의 진호사탑과는 다른 개념의 풍수적 비보사탑이 생겨나는 분기점은, 신라에서 풍수가 立地論으로써 경주의 왕족 혹은 귀족 지배층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굳히는 시기인 下代(780~935)부터이다. 그 근거는 798년에 元聖王이 죽은 뒤에 鶴寺가 陵地로 지목되면서, 그 터의 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攻防에서 이미 풍수적 논리가 得勢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부터는 기존의 진호사탑과는 건립 동기 및 성격, 사탑의 입지, 그리고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 풍수적 비보사탑은 풍수적 환경 해석에 의해 입지가 이루어지고 또한 풍수적 기능이 부가되는 것이다.

경주 소재의 대표적 풍수적 비보사탑으로는 천룡사가 있었다. 천룡사는 경주의 자연재해, 구체적으로는 水害를 막는 상징적이고 풍수적인 기능성이 附加된 풍수사탑으로서 이와 관련된 『三國遺事』(卷3, 塔像4, 天龍寺條) 기록에 의하면, 경주의 입지조건상 天龍이 逆水를 통해 王京에 自然災害를 내리는데 천룡사가 逆水の 발원지에 입지하고 있어 이를 鎮壓한다는 설명이다. 이 글에 따르면 천룡사는 왕도의 逆水 진압을 위한 비보사찰이라고 성격 지을 수 있겠다. 천룡사를 풍수적 비보사로 보는 견해는 ‘逆水’라는 풍수적 표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逆水’라는 용어는 ‘山川順逆’의 개념으로서, 산천이 터를 품에 안듯이 에워 감싼 형세이면 그것을 順하다 이르고, 반대로 등지고 흠어진 지세를 逆하다고

이르거니와 ‘逆水’란 물의 흐름이 터를 중심으로 등글게 감돌아 흐르지 않고 활 등처럼 터를 등지고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홍수가 날 때 물이 局內로 범람될 수 있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逆水 진압 사찰은 고려 태조에 설치된 개성의 비보사찰인 관음굴에서도 유사하게 그 동기와 기능이 드러나고 있다.

## 2) 고려 개성의 비보사찰

신라시대 경주의 지배층에 의해서 주도된 불교적 국토계획 및 운용 원리로서의 비보는 신라의 쇠망으로 인해 일단락을 내리고, 그 주도권은 고려 개성의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며 따라서 비보의 문화적 중심지는 개성으로 바뀌었다. 이에 영남지방은 개성의 선진적인 도성계획에 영향을 받는 受容期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이에 고려의 사탑비보는 영남지방에 조성된 비보사탑의 기원이자 典型이 되므로 고찰될 필요가 있다.

개성의 비보사탑은 통일신라시대의 그것과 비교하여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첫째는 비보사탑의 성격이 다른데, 後述되는 여러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려조의 개성에는 불교와 풍수의 복합적 양식인 풍수사탑이 설치되고 있다. 따라서 前朝의 불교신앙적 護國鎮護와 달리 풍수적으로 水口裨補, 逆水鎮壓, 凶相厭勝 등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입지상으로도 풍수적 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해당 위치가 선택되었다. 이러한 변모 양상은 영남지방의 주요 大邑에 다양한 풍수적 기능을 하는 소위 風水寺塔이 설치되는 역사적 기원이자 모델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비보의 주체와 그로 인한 비보의 중심지가 다른데, 통일신라시대에는 왕실 및 귀족이 주도하여 경주를 중심으로 비보사탑을 배치하였으나, 고려조에 와서는 고려왕조가 주도하고 개성이 중심이 된 비보사탑의 공간적 배치 및 재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문헌으로 확인되는 개성의 대표적인 풍수적 비보사찰로는 開國寺, 演福寺<sup>6)</sup>, 聖燈庵<sup>7)</sup>, 觀音窟<sup>8)</sup> 등이 있다. 그 중 開國寺와 觀音窟은 水德裨補 혹은 水勢鎮壓 기능의 사찰인데, 開國寺는 도성 내의 水口部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위 山川의 地德이 강박

하고 조급함으로 인해 術家의 권청을 받아들여 태조가 창건한 風水寺이고, 관음굴은 왕경의 逆水를 근원에서 진압하고자 창건한 비보사찰로서 앞 절에서 살핀 신라시대 경주의 天龍寺와 같은 기능의 사례이다. 聖燈庵은 主脈裨補 기능을 담당한 사찰로서, 개성의 왕궁을 鎮護하는 오관산 脈의 폐와 간의 부위에 창바위라는 날카로운 바위가 찌르는 듯이 서 있어서 凶하다고 하여 진압한 風水寺이다.

이상과 같은 개성의 비보사찰의 조성동기, 형태 및 기능, 입지는 영남지방의 비보사찰의 조성에도 문화적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동에 조성되었던 수구비보 사찰(臨河寺·城山寺·馬螺寺)은 앞에서 살핀 개성의 여러 수구비보 사찰의 모델을 따랐고, 밀양의 抑石庵 역시 고을의 풍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흉한 바위를 진압하였으니 이러한 사찰비보의 先例는 앞에서 살핀 개성의 관음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고려기에 풍수가 성행할수록 영남지방의 각 지역중심지에 설치되는 비보사찰의 풍수적 기능이 더 다양화되며 세련되는 발전적 양상을 보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 2. 풍수 비보

### 1) 개성의 풍수비보

개성에는 불교적인 비보사원 외에도 풍수이론에 입각하여 풍수적 수단을 사용한 비보도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송악의 소나무를 보전하거나 도성의 허결한 부위에 堤防을 수축하는 등의 풍수적 비보방책을 시행하였으니, 이러한 풍수 비보책은 佛力 비보에 비해서 풍수이론과 수단을 통해서 비보하는 한 단계 進展된 형태인 것이다. 특히 神宗 元年(1197)에는 ‘山川裨補都監’이라는 비보 관청을 설치하였고<sup>9)</sup> 이것을 12년 동안 운영하면서 국내 곳곳에 造山·築墩하여 壓勝했다고 했으니<sup>10)</sup> 기존의 사탑비보를 주관하던 ‘裨補所’보다 비보형태가 다양화되고 기능적 범위가 확대된 것이었다.

고려 조정에서 행한 비보책 중에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궁궐에 이르는 主山을 비보하는 일이었다. 고려 왕궁의 主山이 되는 송악산의 山氣를 보전하고 배양하기 위해서 송악산에 소나무를 심기도 하고, 신하들의 柴樵地를 제한하는 한편 아울러 禁樵

를 세워 규정을 위반하는 자를 엄히 처벌하는가 하면, 특히 고려 말에는 송악의 소나무를 갇아먹는 '송충이 잡기 대회'를 대대적으로 벌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이와같은 송악산에 대한 植松裨補는 이미 왕건의 선조 때부터 행해졌고, 松岳이라는 명칭도 비보적인 동기에서 유래되었음을 『高麗史』에서는 밝히고 있다.<sup>11)</sup>

고려왕조의 비보사실을 문헌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靖宗 7년(1041) 2월 경신 초하루에 工部에서 상주하기를, “송악산의 동서쪽 기슭에 소나무를 심어 궁궐을 왕성하게 하소서” 하니, 이를 따랐다.<sup>12)</sup>고 하였으며, 文宗 13년(1059) 5월 병진에 명령을 내려 “양경 백관들의 柴樵地는 馬首嶺에 국한하고 禁標를 세워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였다”고 하니<sup>13)</sup> 이 일은 고려조의 이른바 禁山 정책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徐兢도 지적했지만, “城 부근의 산은 음양설에 재앙이 있다 하여 나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sup>14)</sup>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공민왕 21년(1372)에는 鎮山인 송악뿐만 아니라 圓丘와 모든 제단, 왕릉(山陵)의 비보에 사냥을 금하는 법령을 내렸다.<sup>15)</sup>

한편, 같은 책에 의하면 예종 원년(1106) 2월 을해일에, 日官이 “송악은 京都의 鎮山인데 여러 해 동안 빗물에 모래흙이 흘러내려 암석이 드러나고 초목이 무성하지 않으니 마땅히 나무를 심어 비보 하소서”하니, 허락하였다<sup>16)</sup>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비보 목적의 栽植이 명시되고 있다. 특히 고려 말의 공민왕과 공양왕대에 이르면 송악의 山氣를 배양하는 소나무를 보전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민왕 3년(1354) 6월에 송악의 소나무를 송충이가 갇아먹어서 잡게 하였고, 공양왕 원년(1389) 5월에는 重房에 명령하여 五部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송충이를 잡게 하였으며<sup>17)</sup>, 6월에는 龜山寺에 大般若 法席을 열어서까지 송충이를 몰리치고 있다. 이듬해 4월에도 五部의 사람들을 내어 송충이를 잡았고, 공양왕 3년 4월에는 각里的 각 수령을 내어 송충이를 잡게 하였다.<sup>18)</sup>

한편, 문종 7년(1053) 8월에는 도읍의 허결한 지세를 補虛하기 위해 제방축조를 계획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제방의 수해방지 기능 외에도 王城의

풍수적 藏風裨補에 해당되는 것이다. 도성의 제방 축조 계획 외에도 貞州(경기도 풍덕군)에는 重防堤 일명 重房裨補라는 풍수적 비보 기능의 제방이 있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班主가 府兵을 데리고 와서 이를 수축하였다.<sup>19)</sup> 중방제에는 남북의 水門을 열어 놓고 논에 물을 대게 했는데 길이 8리, 넓이 3리의 크기였다.<sup>20)</sup> 이러한 중방제는 이후 영남지방을 비롯한 각 도읍에서 널리 설치되었던 못 비보의 始原의 史例가 된다.

이상에서 살펴졌지만 고려 개경의 풍수 비보는 主山의 山氣 保全 및 培養에 집중되어 있고 비보 형태도 매우 단순하였으며, 문종 대에 와서야 都城의 地勢를 보완하는 藏風裨補 기능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뒤이어 서술되겠지만 이에 비해 조선조 한양의 비보는 광역적이며 체계적이고 형태나 기능상으로도 세련된 양상을 보인다.

#### 2) 한양의 풍수비보

조선의 국도인 한양에서 실행된 풍수 비보는 고려의 개성에서 시행된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비보에 대한 지리적인 인식이 前朝에 비해 심화되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조선조에는 우선 主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멀리는 長白山에서 철령을 거쳐 가평과 양주 그리고 백악에 이르는 체계적인 파악으로 심화하였고 가까이로는 궁궐에 이르는 來脈에 더욱 세심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비보 대상과 형태 및 기능이 고려조에 비해 훨씬 다양화되고 체계화되었다. 고려조에는 ‘主山’이라는 장소의 비보에 치중하고 부분적으로 장풍비보에 한정되나, 조선조에는 주산에 이르는 來脈과 주산에서 궁궐에 이르는 地脈까지를 고려하는 이른바 ‘主脈’을 비보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이에 따른 비보형태도 補土, 植松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그림 1).

특히 조선조에는 풍수적 得水裨補에 비중을 두었음이 확인되는데, 못이나 저수지를 파서 明堂水를 보완하거나, 假山을 지어 水口를 방비하는 등의 비보방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비보성격상의 차이점으로서, 得水裨補의 형태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바, 개경에는 사탑을 통하여 불교신앙적인 형태로 비보하고 있지만, 조선의 한양에서는 造山

\* 출처 : 金正浩, 首善全圖

그림 1. 漢陽의 補土所(지도상의 ○ 표시)

이라던지 못을 판다든지 하여 풍수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넷째, 비보의 공간범위상, 고려 개경은 主山인 송악에 限定되고 있지만 朝鮮朝는 主山の 來脈과 內外 四方의 산을 비보하는 등 광역화되었다. 다섯째, 조선의 비보는 前朝에 비해서 禁山政策을 法制化하는 등 정책적인 운영과 조직적인 관리가 체계화되었다. 여섯째, 조선조는 고려조에 비해 도성의 산에 배치된 人工環境(都城門·길·人家·耕作地 등)의 풍수적 惡影響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요컨대 고려조가 국도의 공간적 조성원리로서 불교적 비보책을 위주로 하였다면 조선조에는 풍수적인 비보책이 주요한 도성의 비보원리로 立案되고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개국 후 한양의 공간계획 및 구성에는 풍수 및 비보원리가 적용되었다. 태조 2년에, 권중화

가 새 도읍의 宗廟·社稷·宮殿·朝市를 만들 地勢圖를 바치니, 書雲觀과 風水學人 李陽達·裴尙忠 등에게 명하여 地面의 형세를 살펴보게 하였으며<sup>21)</sup> 國初에는 정승 河崙이 도선의 裨補術을 써서 崇禮門 밖에 못(南池)을 파고 崇仁門 안에 산을 만들었다고 한다.<sup>22)</sup> 승례문 밖에 못을 판 까닭은 “경복궁의 오른 팔에 해당하는 산세가 낮고 미약해서 비보한 것”이고, 승인문 안에 假山을 지은 것은 水口를 비보한 것이었다(그림 2).

조선조의 불교적 비보는 衰退一路를 걷고 있으나, 風水的 裨補는 조선전기까지 활발하였는데 특히 세종, 문종, 성종 대에 집중되었다.

### Ⅲ. 영남지방 비보의 확산

#### 1. 고을비보

원편의 四山禁標圖(1765년)와 오른편의 都城圖(1750년대, 규장각)에는 訓練院 동쪽, 흥인문 남쪽 종각 아해의 청계천 양 옆에 두 개의 조산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 2. 한양의 假山

신라 말의 비보사탑설은 國土均衡發展의 사상과 논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 大邑에 근거지를 둔 호족세력이 적극 수용하여 고을단위의 비보사탑이 조성되었다. 영남지방에는 안동과 진주가 대표적이며 특히 진주의 龍巖寺에 관해서 「靈鳳山龍巖寺重創記」에 三巖寺(선암사, 운암사, 운암사)를 세우면 三韓이 통일되어 한나라가 된다는 비보적 내용이 있다.<sup>23)</sup> 동시에 선종 사찰이 지방에 근거지를 정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王都를 중심으로 외곽에 설치되었던 진호사탑 외에도 지방에 고을 비보사탑이 창건되기에 이르렀다. 신라 말에 이르면 이전과는 달리 풍수지리설의 내용과 보유 계층이 변화하고 지방으로 전파되었으며, 경주 중심의 名勝 概念이 변방지역까지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새로운 명승지들과 비보사탑이 탄생되었던 것이다.<sup>24)</sup> 따라서 초기적 고을 비보사탑의 확산양상은 九山禪門의 세력확대 및 지방호족의 독자적 세력화와 대응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산선문의 비보 사례로 曠陽山門의 개창조인 智證道憲(824~882)은 문경의 봉암사 터를 둘러보고 사찰을 지어 鎮壓한 적이 있다.<sup>25)</sup> 이외에도 9세기에는 전국의 각 지방에 많은

수의 사탑이 건설되고 있다. 석탑만 하더라도 8세기에 비해 5배의 증가를 보이며, 특히 경남지방에서의 뚜렷한 증가를 보여준다. 양식적으로도 신라시대의 定型石塔과는 다른 산천비보 혹은 진압의 기능을 하는 異型石塔이 등장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고을비보의 기능을 지닌 사탑으로 추정된다.<sup>26)</sup>

나말려초 영남지방의 大邑에 건립되었던 고을비보사탑은 고려 조정의 정치적 지방통제와 맞물리면서 개경이 중심이 된 국가(산천)비보의 사탑으로 그 기능이 변질·재편되었다. 山川裨補寺塔은 고려조의 비보문서인 「裨補記」에 그 운영 및 관리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不傳하여 그 정확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事蹟記類에는 경주 기림사, 진주 용암사, 양산 통도사, 성주 청암사, 합천 해인사, 청도 운문사, 선산 도리사, 문경 봉암사, 홍해 법광사, 순흥 부석사, 예천 용문사, 의성 고운사 등의 비보사찰을 열거할 수 있다. 이들 사찰 중에서 도리사, 통도사, 해인사 등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들은 초창 당시의 조성동기 및 목적과는 별도로 고려조에 와서 왕조의 필요에 의해 비보사찰로 기능 및 의미가 부가되고 재해석되었으

며, 지리적으로는 개경을 중심으로 하여 비보적 위상 및 위치가 재편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의 지방행정은 大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지방의 비보사찰 역시 大邑을 중심으로 편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고을비보사찰의 한 확산경로는 界首官에 의한 것이었다. 고려조에 중앙의 官人인 界首官이 지방에 파견될 때는 交通路 중심이거나 지방의 大邑에 중점을 두었다.<sup>27)</sup> 고려가 지방 外邑에 外官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은 성종 2년(983)의 12牧의 설치에서 비롯되며, 高麗前期에 界首官이 설치된 곳은 3경, 3도호부, 8목을 합하여 14개소였다. 영남지방에 계수관이 設定되었던 大邑으로서 3京의 하나인 慶州와 8牧에 편제된 尙州·淸州에 이어 고려 후기에는 福州(安東)와 興安(星州)·金寧(金海)·禮州(寧海)가 추가되었다. 영남지방에는 총 7개소의 계수관이 있었던 셈이다. 계수관 소재 고을은 지방행정의 중심지인 동시에 문화의 중심이었으므로, 계수관은 비보사찰의 설치 및 관리, 그리고 확산에도 기여하였을 것이다. 곧 경주는 물론이고 진주, 안동, 성주, 김해, 영해에 모두 산천 비보사찰의 존재가 문헌상 확인된다. 고려 현종 9년(1018)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 군현 580여 읍 가운데 外官(守令)이 없는 屬郡縣이 364개나 되었고, 麗末까지도 守令이 설치되지 않은 속현이 161개나 남아 있었다.<sup>28)</sup> 이와 같은 사실은 고려조 때까지의 비보가 首都인 개성이나 大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낳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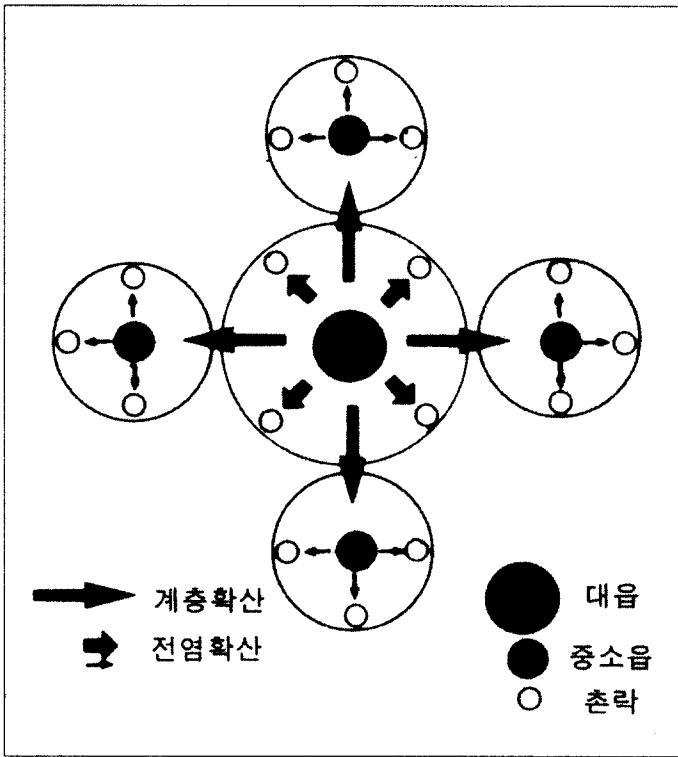
고려시대에 고을단위에 조성되었던 비보적 문화요소의 확산에는 주요 교통로와도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 고려의 幹線道路網은 개경을 중심으로 서북-동남 방향과 동북-서남 방향으로 뻗는 X자형 교통망을 이루고 있었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중요시되었다. 서북축의 교통로는 국방 및 외교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간선도로였다. 동남축은 嶺南大路로서 舊新羅系 귀족의 본거지였으며, 인구가 가장 조밀하고 산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다.<sup>29)</sup> 개경 靑郊驛을 기점으로 1로는 (양주-평구-원주-단양)-죽령-안동-영천-동경에 이르는 길이었고, 2로는 (남경-광주-이천-충주)-계림령-예천에 이르렀으며, 3로는 (용인-양지-죽산)-문경-상주-해평-대구-동경과 김해에 도달하였고, 4로는(청주-영동)-추풍령-김천-

성주-함포에 이르렀다. 이에 기초하여 영남지방 주요 고을의 비보경관을 살펴보면, 1로상의 안동·경주·의성과, 2로상의 예천, 그리고 3路上의 문경·상주, 4로상에는 성주 등지에 비보경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고을의 비보사탑은 11세기 중반부터 과다 창건으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며, 12세기 말에 최충헌이 재상의 원당을 철폐할 것을 건의하면서 축소된다. 神宗 元年(1197)에는 國策 裨補機關으로서의 山川 裨補都監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고을의 풍수적 비보는 고려 후기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노력은 조선 초에 이르러 대다수의 郡縣에 비보물을 설치하는데 이르렀다.<sup>30)</sup> 고려 말 이후 조선조를 거치면서 비보사탑은 전반적인 퇴조의 길을 걷지만 고을의 특성에 따라서는 조선시대에도 개창되고 있다. 상주의 東海寺는 洪武年間(1368~1398)에 無學이 창건하였다고 하고 東方寺 역시 조선 초기의 창건 기록이 있다.<sup>31)</sup> 그리고 청도의 德寺는 조선 중엽[明宗代]의 창건 사실을 전한다.<sup>32)</sup>

조선조에 들어와 고을 단위에서 비보가 확산되는 構造와 經路는 前朝와 달랐다. 신라 말 지방호족은 자신의 근거지에 비보를 설치하였으나, 조선조의 중앙집권화로 말미암아 고을의 비보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료에 의해서도 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군현제는 중앙정부에서 선임한 守令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을 취급하는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제도로서, 고려의 계수관과 마찬가지로 한양의 비보를 고을에 전파시키는 주요 매체가 되었을 것이다. 영남지방의 예를 살펴보면, 개국초 한양의 비보적 도성계획을 주도하였던 인물인 河崙은 영주읍에 防河藪와 德山藪라는 水災防禦기능의 비보숲을 설치하였고<sup>33)</sup>, 성종 대 비보설을 주장하여 조정에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결국에는 유배까지 받았던 최호원은 일찍이 大丘府使로 재임시에 대구에 풍수적 비보책을 시행하였으며<sup>34)</sup>, 柳雲龍도 1592년 풍기군수 시절에 술경지라는 고을 水口의 허술함을 막는 술숲을 조성했다고 한다.<sup>35)</sup>

고을비보의 확산경로는 一次的으로는 大邑에서 비보가 설치되고 二次的으로는 大邑의 행정적 지배를 받는 周邊 屬縣 혹은 中小邑에 파급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안동권을 예를 들어 설명하



대읍을 거점으로 인근 중소읍으로의 계층적 확산과 아울러 읍에서 인근 마을로의 전염확산의 양상을 나타낸다.

그림 3. 영남지방 비보의 확산 개념도

자면 大邑인 안동을 중심으로 管轄 小邑이었던 남쪽의 일직읍과 의성읍, 서쪽의 풍산읍과 예천읍, 동북의 예안읍에 영향을 주었다.

영남고을 비보의 확산 양상을 거시적으로 개관하면 多核的 階層 擴散의 형태로 요약할 있다. 곧 首都(개성·한양)라는 首位核心地에 의해 파급된 비보의 요소는 일차적으로 大邑이자 地方核心地(경주·밀양·안동·상주·진주·김해 등)에 계층적으로 파급되고, 이들 대읍이 2차 핵심지가 되어 인근 중소읍과 마을로 階層 및 傳染擴散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3).

고을비보는 재임 관리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邑誌에 비중있게 기재되었다. 안동의 예를 들자면 府의 비보물인 鐵柱(橋)를 府城의 남문 밖에 조성하였는데<sup>36)</sup> 弘治 壬子년(1492)에 깨어져 승려들로

하여금 다시 조성케 하였고<sup>37)</sup>, 顯宗 甲寅년(1674)에 다시 쪼개져 부사 맹주서에 의해 재조성되었으며, 기묘년에 다시 기울고 쓰러져 부사 홍득우가 승려들에게 다시 세우라고 명하였다고 하였으나<sup>38)</sup> 고을 비보물에 대한 관원들의 관심과 비중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겠다. 그리고 17세기 초에 편찬된 안동의 읍지인 『永嘉誌』는 비보사탑을 비롯하여 조산, 숲 등의 고을비보의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이는 고을비보에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책은 당시 安東府를 대표했던 士林이 두루 편찬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sup>39)</sup> 당시의 地方士林들도 고을비보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고을의 대표적 비보유형으로서 조산, 숲, 조형물, 못을 들어 순서대로 기원과 확산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영남 고을의 造山이 언제부터 조성되었는지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이미 경주 봉황대 근처에 30여 개의 조산이 있었다고 하며<sup>40)</sup>, 조선개국 초 한양의 水口에 造山을 조성했던 것으로 보아 영남지방 도읍의 空間計劃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守衛의 품계가 높았던 경주[從二品], 안동·진주·상주·성주[以上 正三品], 김해·밀양·선산·순흥[以上 從三品] 등 大邑의 空間構成에는 한양의 공간체계가 크게 반영되었을 것이니, 영남지방 고을조산의 소재지 중 안동, 진주, 상주, 김해, 밀양, 선산 등의 주요 읍에 모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와 관련한 이해가 가능하다. 造山이 邑基의 중요한 景觀要素였다는 사실은 조선조의 邑誌나 郡縣地圖 중에 造山의 사실이 기록되거나 표기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永嘉誌』에는 안동부의 아홉 장소에 총 16개의 조산을 각각 위치, 형태, 기능 등의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鰲山誌』(1677)에도 청도의 조산이 기술되었다.<sup>41)</sup> 그리고 『海東地圖』(18세기 중엽)와 『慶尙道邑誌』(1832) 및 『嶺南邑誌』(1895)의 도읍을



요 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임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제 성종 3년에 각道の 관찰사에게 下書된 내용 중, “화재를 예방하여 여러 고을에서 裨補하는 숲(林藪)의 성장한 소나무가 타지 않도록 하라”<sup>42)</sup>는 표현에서도 당시 많은 고을에 비보숲이 있었고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고을비보의 관리 및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고을의 주요 비보숲은 官에서 관리하였으며, 그 사실은 邑誌에 「林藪」라는 項目으로 따로 편제되어, 林藪의 위치, 명칭, 크기, 植藪 년도와 植藪者 등이 기록되었다.<sup>43)</sup> 상주의 邑誌인 『星山誌』(1677)에는 西郊藪라는 裨補藪를 기록하고 있는데, 옛부터 術家의 말을 써서 밤나무를 무성하게 심고 백성들의 경작과 개간을 금하였고<sup>44)</sup>, 상주에도 밤나무 비보숲이 있었는데 『商山誌』 「林藪」條에 의하면, “栗藪는 州東 5리에 있는데, 옛 전설에 邑基의 서쪽 近山<sup>45)</sup>의 형상이 사나운 지네와 같아서 서로 마주보는 지점에 밤나무를 심어서 制毒하였다고 하니, 지네와 밤은 相克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

『해동지도』에는 고을의 水口部에 세 개의 조산(화살표)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다.

그림 4. 산정의 조산

살펴보면, 金海, 산청, 선산 등지에 조산이 그려져 있다(그림 4).

영남지방 고을숲의 역사적 기원 역시 상세하지 않으나 함양의 상림은 신라 진성여왕 때 최치원이 함양태수로 와서 堤防을 안정시켜 洪水害를 막기 위해 造林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前絶에서 살핀지만 고려와 조선에 걸쳐 國都의 주산 및 주위 산지에 여러 차례의 植松을 통한 山脈裨補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러한 공간운용책은 영남지방의 주

다<sup>46)</sup>(그림 5·6). 안동의 白淵林은 안동의 水口를 막아 가리는 기능을 하였는데 옛부터 官에서 출입을 금했다고 한다.<sup>47)</sup> 고을비보숲은 임란 전후의 사회적 무질서 및 행정적 통제 기능의 약화와 이에 따른 관리 소홀로 인하여 별목되거나 경작지로 開墾되다가 다시 復舊되기도 하였다. 진주의 柯亭藪는 1576에 伐木·耕田되었으나 난리 후에 裨補所로서 다시 나무를 심었으며<sup>48)</sup>, 경주의 閑地藪는 沙里驛驛田으로 개간함으로써 훼손되었는데 고을사람

그림 5. 상주읍의 지네형국 비보 밭숲

들이 沙里舊驛의 撤去 및 이전을 신청하여 이듬해 전답을 폐하고 숲을 조성함으로써 기능을 복구시켰다.<sup>49)</sup> 의성의 裨補藪 역시 난리 후에 베어 거의 없어졌으나 許厚가 현감으로 있었을 적에 잡목을 심었다.<sup>50)</sup>

영남지방의 비보조형물은 장승, 돛대[檣], 솟대 [진대·집대], 돌미륵, 돌자라, 돌거북, 돌자라, 石獸, 鐵牛·鐵馬 등의 형태가 있다. 비보적 장승류의 기원은 고려 초 사찰에 설치된 長生標로 추정되며 이러한 산천비보 장생이 차츰 민간화하면서 辟邪의 鬼面을 조각한 읍락비보 장승이 나타난다.<sup>51)</sup> 장생 표는 고려 초기에 비보사찰로의 지정과 함께 설치된 것으로, 영남지방의 경우 양산 통도사에는 11세기 후반에 裨補長生이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다. 즉 『通度寺事蹟略錄』 中 「寺之四方山川裨補」條에서는 사찰의 사방 산천을 비보하기 위해서 長生標 12기를 조성하였다고 하였다. 이들 長生은 고려 宣宗 2년(1085)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형태는 石碑型和 石積型으로 구분되며, 그 중 두 기(孫仍川 國長生<sup>52)</sup>·울산시 삼남면 象川里 國長生)가 현존하고 있다. 청도 운문사에 있었다는 장생표 역시도 같은 성격의 비보장생으로 추정된다. 『三國遺事』에 “天福 8년 계묘(943년), 雲門山禪院 長生標 남쪽은…” 云云한 구절과 “開運 3년 병진(946)의 운문산선원 장생표 탑에 관계되는 공문서에 보면 장생이 11개” 라는 표현이 그 예증이다. 장생표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先代 자료로서,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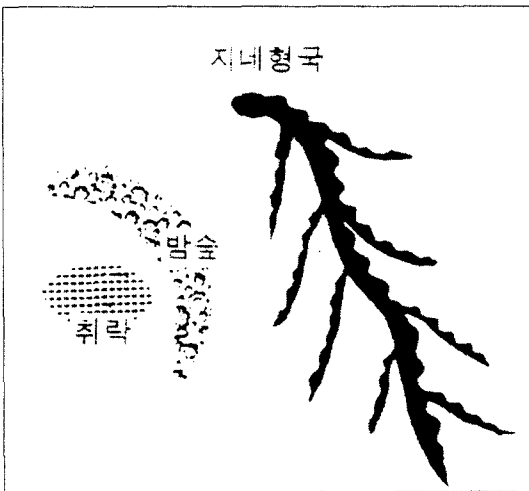


그림 6. 지네형국의 厭勝 개념도

(884)에 의하면, “乾元 2년(759) 왕이 특별히 명하여 장생표 기둥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그 표주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乾元二年 特敎植長生標柱 至今存焉)”<sup>33)</sup>는 기록으로 보아 8세기 당시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생표는 왕의 장수를 기원하여 높은 寺格을 나타내던 본래의 기능이 고려 초에 이르러 비보설의 영향을 받아 국가비보사찰의 지정과 함께 國基의 연장을 위한 山川裨補 長生으로서의 기능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산천비보는 조선조에 이르러 고을이나 마을수호단위의 읍락비보로 변화되어 수구 등의 衛護와 煞을 막는 염승물로서 장승을 설치하게 되었다.<sup>34)</sup>

비보적 기능의 돛대[檣]는 고려조에 邑城의 비보적 이유로 흔히 건립되었음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前代의 州와 縣에서 구리나 석조물을 써서 배의 돛대 모양을 만들어 地氣를 壓勝하는 것이 곳곳에 있다”<sup>35)</sup>는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비보 돛대의 시원적 형태는 불교의 당간지주로서 그것은 주로 行舟形局의 보완물로서 기능성을 갖는다. 청주의 용두사 당간은 고려 초기 건립당시의 불교 신앙적 기능에서 이후 청주 고을의 풍수적인 비보물로 기능이 바뀌었으며, 부안과 나주에도 각기 고을의 비보기능을 담당하는 돛대당간이 남아있다.<sup>36)</sup> 영남지방의 비보 돛대 사례는 안동 府城의 남문 밖에 行舟形局의 돛대 기능을 갖는 鐵柱가 있었다.

고을 비보못을 일반적인 水景施設로 간주할 때, 그 기원은 외적의 방어를 목적으로 조성한 上古時代의 溝池로 거슬러 올라간다. 못은 池塘으로 漢譯되는데, 池는 정원의 못을 말하며, 塘은 用水池의 일종으로 생활용수와 방화용수, 농업 및 공업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큰 못과 저수지가 여기에 해당한다.<sup>37)</sup> 신라의 경주나 고려의 개경에 비보 못의 설치하였다는 문헌상의 기록을 찾기는 어려우며, 다만 고려시대에 貞州(경기도 풍덕군)에는 重防堤라는 비보제방이 있어, 매년 봄과 가을에 班主가 府兵을 데리고 와서 수축하였으며<sup>38)</sup>, 남북의 水門을 열어 놓고 눈에 물을 대게 했는데 규모는 길이 8리, 넓이 3리<sup>39)</sup>라는 내용이 전한다. 그리고 조선 초에 河崙이 한양 우백호 支脈의 藏風裨補 및 補虛策으로 崇禮門 밖에 못[南池]을 팠다는 기록이 있고, 興仁門 밖에도 수구비보를 목적으로 못을 조성하였

음은 앞 절에서 살핀 바와 같다. 이렇듯 『成宗實錄』의 내용 중에 “裨補한 곳의 사찰이나 탑, 그리고 못과 숲”이라는 표현에서 보아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비보수단임을 알 수 있다.<sup>40)</sup> 조선조의 국도에서 시행하였던 못비보는 형태와 기능상 典例가 되어 영남의 주요 고을에도 확산되었다.

## 2. 마을비보

영남지방 마을비보의 확산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조선 中·後期에 읍 주변 촌락에로의 주거지 확산 및 土族村 형성과정과 관련된 점, 둘째는 고을비보의 영향력이 마을비보로 파급된 점, 셋째는 地師나 僧侶 혹은 儒士 등 風水知識人이 비보적 문화경관 확산의 人的 媒介體(擴散者: diffuser)로 작용한 점 등이다.

고려 후기부터 본격적인 首都圈文化의 지방 移植과 기성관료의 낙향생활은 지방문화의 발달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在地土族은 14세기 말 왕조교체와 15세기 중엽 世祖의 찬탈로 인해 落鄕한 기성관료들과 함께 각지로 확산되었으며<sup>41)</sup> 임란 후 17세기는 씨족마을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로서 특히 후반에는 씨족마을이 대량으로 건설되는 한편<sup>42)</sup> 開墾에 의해서 새로운 반촌을 건설하는 예가 많아졌다. 영남지방은 麗末부터 土族이 많이 출현하였고 타지방보다 班村이 발달하였는데<sup>43)</sup> 중앙정계에서의 失勢에 따라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土族들이 낙향한 것도 그 한 요인이 된다.

麗末 이래 정치적 지배세력의 교체와 吏族과 土族의 分化, 農莊의 발달과 지방교육의 발달은 在京官人의 落鄕 생활과 在地土族의 외곽지역 移住를 촉진시켰다. 그 결과 관개수리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새 農法을 적용할 수 있는 하천과 계곡의 종류 내지 상류지역에 土族의 이주가 많아졌다. 따라서 16세기 이후에 나온 각 邑誌 坊里條의 주민 住居相을 보면, 이러한 곳에 사족들의 卜居로 인해 생기는 新生村이 많았다.<sup>44)</sup> 영남사람의 先祖들은 여말선초 이래 邑治의 외곽지대와 속현·향·소·부곡과 같은 任內에 이주하거나 卜居하여 농지를 확장하고 새 농법을 적용하여 오지·벽지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켜 나갔다.<sup>65)</sup> 그들은 주자학적 향촌지배질서와 새 선진농법 및 사대부의 '山林' 지향성으로 인해 海居보다는 江居를, 江居보다는 溪居를 선호하여 移住하거나 卜居한 결과 낙동강의 본류와 그 支流의 上流域에 조선시대 영남학파를 대표했던 명문·거족들의 同姓村이 자리잡게 되었다.<sup>66)</sup> 따라서 낙동강의 上流와 中流域 및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크고 작은 지류와 산간계곡을 따라 재지사족들의 集居村과 農庄이 개설되었는데 태·소백산맥의 嶺下邑(안동·상주·영주·순흥·풍기·봉화·예천·예안·의성·영해·경주·영천)과 伽倻山下邑(선산·성주·김산·고령·인동) 및 智異山下邑(함양·진주·합천·함안 등)의 산간지대에 재지사족의 동족촌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sup>67)</sup> 특히 태백산과 소백산 아래의 안동지방, 지리산과 덕유산 아래의 진주와 함양지방은 계류를 이용한 관개가 편리하고 경승 또한 수려하여 조선시대 지배계급인 사대부 계급이 예를 지키면서 사대부의 이름을 잃지 않고 대대로 세거할 수 있는 가거지로 인식되었다.<sup>68)</sup>

麗末까지만 해도 主邑의 邑治 지역이 행정·문화의 중심지인 동시에 그 鄉邑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土姓吏民의 사회·경제적 기반이었으므로 그곳이 주로 개발되어 있었고, 任內나 邑治의 外廓지대는 인구가 희소하고 주민이 우매하여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에 지방의 지식층인 在地士族 또는 落鄉士族이 朱子學의 鄉村支配倫理와 새 先進農法을 가지고 이주하여 새 터전과 농장을 개설·경영함에 따라 邑治 이외의 향촌지역이 비로소 획기적으로 개발되어 갔다.<sup>69)</sup> 사족들은 設村過程에서 당시의 사회적 통념상, 재지적 기반의 확충을 보장하는 本據地의 영속적 발전을 위하여 풍수적 입지조건을 중요시하였으며 이상적인 환경의 조성과 유지에 비보적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다. 예컨대 안동 천전마을의 「開湖禁松完議」(1737)에 강조되듯이 '비보경관의 보전 여부에 宗基의 興廢가 달려 있다'는 인식이 이를 말해 준다. 개호송은 "水口의 空虛를 비보하며, 宗基의 興廢는 이 소나무에 달려 있으니 어찌 보호에 마음을 다하지 않겠는가(以補水口之空虛 宗基興廢係於此松 尤豈不盡心於保護此松之道)"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sup>70)</sup>

영남지방의 주요 반촌 중에서 사족들의 입향 및 비보경관의 조성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 봉화군 물야면 오록리의 창말은 1696년에 풍산 김씨 蘆峰 김정이 개척하였는데 입향 당시에 마을의 內靑龍脈을 숲으로 비보하였으며, 대구 동구 둔산동 웃골 마을은 大君師傅을 지낸 최동집(1586~1661)이 1616년에 정착하여 설촌 당시 地官의 조언에 따라 비보못을 설치하였다.<sup>71)</sup> 고성군 마암면 章山里는 조선 태조 때 許麒가 입향하였고 마을의 地形的인 缺陷을 補完하기 위해 숲을 造成하였다.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평광마을은 1480년(성종 11)에 慶尙都事 李啓縵이 터를 정하고 동구에 숲을 조성하였다. 그밖에 비보의 조성시기는 명확치 않으나 안동의 도산면 의인은 퇴계의 손자인 李純道가 1630년 경 정착한 마을로 세개의 補虛 조산이 있고<sup>72)</sup>,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리는 조선 숙종 때 관찰사를 지낸 金聲久가 17세기 말에 개척한 마을로 비보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함양읍 지곡면 개평리는 정여창의 본향으로 이 마을 역시 마을입구에 비보경관이 눈에 띈다. 그리고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는 南海 縣令을 지낸 黃碩健이 입향하였고 水口에 비보경관이 있다. 산청군 남사마을은 성주이씨 李淑淳이 1400년에 낙향하여 정착하였는데 마을입구에는 형국보완용 空地를 둔 독특한 비보경관이 있다. 고성의 단계마을은 1470년경 안동권씨 權金錫이 입향하였으며 비보조형물이 있다. 이윽고 촌락비보의 확산 경로는 반촌에서 민촌으로, 宗村에서 分派村으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을비보의 형성과 확산과정에 작용한 또 하나의 요소는 고을의 선진적 비보문화였다. 고을의 비보경관은 읍치 주위의 마을에 波及·受容되어 접근성이 높은 주변 촌락에 비보가 설치되는 動因 및 모형이 되었을 것이다. 안동권을 예를 들면 大邑인 안동을 핵심지로하여 관할 소읍이었던 남쪽의 일직읍과 의성읍, 서쪽의 풍산읍과 예천읍에 계층적으로 확산된 비보는 인근 마을들에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비보가 고을비보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예증은 상주에서도 발견된다. 상주시 사별면 원흥리와 내서면 서원리 밤원의 비보양태는 상주읍(북동)의 비보형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7).

취락(사진 왼쪽) 옆 방죽 가에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밤나무가 있다.

그림 7. 상주 원흥리 지내혈의 밤숲 비보

그리고 영남지방 마을비보의 擴散者로서 선비, 僧侶, 地官, 도사 등 비보지식인이 비보의 設置를 권유하여 비보물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대구 옷골은 지관이 비보를 권유한 사례이고, 달성군 현풍면 池里는 1719년 서흥 김씨가 이주할 때 地師의 권유로 비보못을 조성하고 못골 또는 池洞이라 하였다.<sup>73)</sup> 그밖에 함천군 권반(地官), 함천군 용계리 법정과 정동, 성주군 용암면 문명리에는 승려의 권유로 설치한 비보가 있으며,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는 도사가 조산 비보를 권유하여 설치하였다고 한다.<sup>74)</sup>

#### IV. 맺음말

영남지방의 비보의 기원은 가야와 신라의 불교적 비보사탑에서 비롯하고, 이윽고 고려 및 조선조를 거치면서 풍수적 비보의 성행은 영남지방의 비보경관의 조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비보의 확산양상은, 조선 초기까지는 首位의 空間的 位階를 지니는 國都(개성·한양)를 裨補核心地로하여 周邊地域의 府·牧·大都護府 등 大邑의 次位中心地로 확산되고, 大邑이 다시 裨補中心地가

되어 순차적으로 인근 郡縣 단위의 中小 邑治로 비보가 확산되었다. 이윽고 조선 중기 이후 在地土族들의 촌락 개척과 맞물려 邑治 외곽의 주요 土族의 주거지로 비보는 파급되어 나갔다.

본고는 영남지방 비보의 기원과 확산 실태를 거시적인 시각으로 살펴본 것으로서, 이후의 연구과제로는 미시적으로 각 고을과 마을에서 나타나는 비보경관에 대한 구체적 접근을 통해 확산경로를 실증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그 양상과 특성을 구명하며, 비보문화 확산의 지리적·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밝히기 위한 작업이 아울러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비보적 문화 전통에 관한 지역 연구는 한국의 전통문화경관 연구에 가치 있는 한 요소로 설정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註

- 1) 최원석, 2001, 「裨補의 概念과 原理」, 민족문화연구 제 34호, p.134.
- 2) 『燕山君日記』 1年 5月 28日: “裨補의 說은 실로 道說을 宗祖로 삼으니…”(忠淸道都事 金駟孫이 시국에 관한 이익과 병폐 26조목의 상소 내용 중에서)

- 3) 최원석, 2000, 『영남지방의 비보』,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p.1
- 4) 풍수적 비보와 불교적 비보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비보목적으로서의 이상향의 관념에 있어 불교적 비보는 불교적 이상향(佛國淨土, 미륵용화세계 등)를, 풍수적 비보는 풍수적인 명당·吉地를 전제한다. 둘째, 비보의 메커니즘에 있어 불교적 비보는 비보효과의 달성에 있어 佛力이 상징적으로 개입되나(비보물 → 佛力 → 裨補), 풍수적 비보는 그렇지 않다(비보물 → 裨補). 셋째, 비보수단에 있어 불교적 비보는寺, 塔, 불상, 당간 등 상징적 불교조형물을 주로 활용하나 풍수적 비보는 숲, 조산 등의 풍수비보물을 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특히 고려시대에) 兩者는 긴밀히 결합하였으며, 풍수적 비보에 불교적 조형물이 널리 활용된 바 있다.
- 5) 풍수론에서 逆水라는 개념은 논리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順逆 가치 개념으로서 山川의 順·向은 吉로, 逆·背는 凶으로 본다.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逆水라는 용어는 위 山川順逆의 일반론적 인식에 의거한 것이다. 그런데 풍수적 명당의 水口에서 요구되는 逆水(혹은 逆水砂)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山勢와 逆으로 물이 局을 關鎖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後者의 개념은 擇里志의 地理條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 6) 『東文選』 卷78.
- 7) 『東文選』 卷79.
- 8) 『東文選』 卷113.
- 9) 『高麗史』 卷77, 百官志 2, 諸司都監各色.
- 10) 이병도, 1947, 『고려시대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p. 276.
- 11) 『高麗史』 世系.
- 12) 『高麗史』 卷第 6 世家.
- 13) 『高麗史』 卷第 8 世家.
- 14) 『高麗圖經』 卷23 雜俗二 樵: “蓋旁城之山, 於陰陽有忌, 不許采斫”
- 15) 『高麗史』 卷85 志 第39 刑法2: “二十一年十一月 禁園丘及諸祭壇山陵鎮山裨補田獵.”
- 16) 『高麗史』 卷17 世家.
- 17) 『高麗史』 卷54 志 第8 五行3.
- 18) 韓在濂, 『高麗古都徵』 山水考 松嶽條.
- 19) 『高麗史』 卷56 志 第10 地理 1, “貞州: “重房堤.[稱重房裨補. 每春秋班主率府兵修築.”
- 2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3, 豐德郡, 古蹟.
- 21) 『太祖實錄』 2年 2月 10日.
- 22) 『成宗實錄』 16年 1月 8日.
- 23) 『東文選』 卷68 「記」 ‘靈鳳山龍巖寺重創記’.
- 24) 추만호, 1991, 『羅末麗初 禪宗思想史 研究』, 고려대 사학과 박사논문, p.149.
- 25) 『鳳岩寺智證大師碑銘并書』
- 26) 異型石塔群 중에서 영남지방에 있는 것은 慶州南山 茸長寺谷三層石塔, 法界寺三層石塔, 飽石溪破石塔, 琵琶溪破石塔, 英陽三池洞石塔, 月城郡吾也里三層石塔, 安東大寺洞石塔, 禪本庵三層石塔, 安東 開目寺 塔塔址, 英陽邑 縣二洞 模塼石塔, 英陽郡 奉甘模塼石塔, 安東 慕谷洞 三層石塔, 安東 燕尾寺址三層石塔, 大乘寺 潤筆庵 後崗 五層石塔 등이 있다.(출처: 秦弘燮, 1978, 『異型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 한국미술사학회, 『考古美術』, pp.138-139. 1980, 『異型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 補』, 한국미술사학회, 『考古美術』, pp.146·147).
- 27) 이준희, 1990,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연구』, 일지사, p.39.
- 28) 이수건, 1989,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p.26.
- 29) 최영준, 1990, 『영남대로』,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p.103.
- 30) 『世宗實錄』 30年 3月 8日.
- 31) 『東海寺事蹟記』, 『韓國佛敎史學大事典』 1991, pp.1165-1166
- 32) 『慶北마을지』 中, 1991, pp.757-759. 『淸道郡誌』, 1991, p.880.
- 3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5, 榮川縣 山川條: “防河蔽; 在郡西二里. 德山蔽; 在郡南三里. 郡素患水災, 河嵩知郡時, 築土植木成此二蔽, 自是民賴其利.”
- 34) 『成宗實錄』 16年 1月 9日.
- 35) 『豐基邑誌』, 1997.: “솔경지숲은 邑 동부 5리 토성마을 앞에 있었다. 금계천과 남원천이 서로 합류되는 어음목 들판에 펼쳐진 이 솔경지는 왜정말기 전쟁물자로 사용키 위해 베어버렸다.”
- 36) 『永嘉誌』 卷6 古跡: “在府城南門外 長三十餘尺大一圍餘 … 府人傳稱 府基乃行舟形 故像舟之建橋云”
- 37) 『慶尙道邑誌』 安東府 古蹟條: “以水鐵鑄成… 弘治壬子破折使香徒改造, 顯宗甲寅又折府使孟霄瑞改造己卯又將傾仆府使洪得禹令僧徒改立”
- 38) 『慶尙道邑誌』 安東府 古蹟條: “以水鐵鑄成… 弘治壬子破折使香徒改造, 顯宗甲寅又折府使孟霄瑞改造己卯又將傾仆府使洪得禹令僧徒改立”
- 39) 이수건, 1989, 같은 책, p.30.
- 40) 『東京雜記刊誤』 <이병도, 1947, 같은 책, p.276.에서 재인용>.
- 41) 『鰲山誌』, “東松亭; “本郡地脈有南走之勢 松樹爲林又造土山於其中 爲鎮壓遮蔽之意也”
- 42) 『成宗實錄』 3年 2月 23日.
- 43) 양보경, 1987, 『조선시대 邑誌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지리학회총 p.33.
- 44) 『星山誌』(국립도서관 한-62-167); “西郊蔽在州西一里 西門外川邊 舊用術家之言 盛植栗木 禁民耕鑿 稱爲裨補蔽 壬辰亂後 鄉綱解地 民心巧詐 皆以私田冒錄耕鑿 幾無餘者 栗木斬伐盡矣”

영남지방 裨補의 起源과 擴散에 관한 一考察

45) 現 滄州서원 뒷산.  
 46) 『商山誌』 「林蔽」; 「栗蔽 在州東西五里 舊說邑基西近山形如蟬蛻 種栗於相望之地以制毒云 蓋蟬蛻與栗相克故也」  
 47) 「白淵林. 在元堂灘越邊. 雜木茂盛. 擁蔽水口. 自古官禁.»  
 48) 『晉陽誌』·『慶尙道邑誌』 晉州牧 林蔽; 「在州西五里, 萬曆丙子伐木爲田屬書院, 亂後以裨補所還廢其田植木焉.»  
 49) 『慶州先生案』; 「府尹閔周冕, 天啓癸亥, 沙里驛卒移居閑地原. 自古禁護之地, 開渠作畝, 擊破邑居主脈, 州民偵查者近五十年, 閔府使到任翌立春, 勅令還移舊基, 而閑地原田畝盡爲陳廢, 主標禁耕遍植樹木, 邑居之主脈復完, 州民之積憤始雪矣.»  
 50) 『慶尙道邑誌』 義城縣 古蹟條; 「裨補蔽: 在北院傍. 邑基西北空缺, 造山植木名曰裨補蔽. 亂後斬伐殆盡, 許厚知縣時加築而高大之, 植以雜木.»  
 51) 김두하, 1995, 『벽수와 장승』, 집문당, p. 247.  
 52)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소재. 크기는 높이 228cm, 폭 58cm, 두께 30~60cm이며, 네모난 형태의 기단석 위에 자연적으로 된 비석형으로서 뒷면에는 비문이 음각되어 있다.  
 53) 李智冠, 『歷代高僧碑文』 -新羅篇-, 가산문고, 1994, p.98, 109.  
 54) 김두하, 1995, 같은 책, pp.246~253, 350~372.  
 55) 『新增東國輿地勝覽』卷33, 益山郡 古跡; 「前代州縣, 或用銅若石造爲舟楫之形, 以壓勝地氣, 處處有之」.  
 56) 정승모, 1993, 「조선시대 石橋의 건립과 그 사회적 배경」, 『泰東古典研究』 제10집.  
 57) 閔庚玆, 韓國庭苑文化 -意匠 및 技法論-, 藝耕産業社, 1991, p.78, pp.203-204.  
 58) 『高麗史』卷56 志 第10 地理 1, '貞州'; 「重房堤[稱重房裨補. 每春秋班主率府兵修築.»  
 59) 『新增東國輿地勝覽』卷13, 豊德郡, 古蹟.  
 60) 『成宗實錄』16年 1月5日.  
 61) 이수건, 1995,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p. 29.  
 62) 고승제, 1977, 『韓國村落社會史研究』, 일지사, p.264.  
 63) 이규성, 1995, 「조선시대 영남지방 반촌의 형성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영남대 건축공학과 박사 논문, p.1.  
 64) 이수건, 1995, 같은 책, pp.139-140.  
 65) 위의 책, p.20.  
 66) 위의 책, p.19.  
 67) 이수건, 1995, 같은 책, pp.68-69.  
 68) 김덕현, 1999, 「경상남도 향토문화의 이해」 『경상남도의 향토문화』 上, 정신문화연구원, p.13.  
 69) 이수건, 1995, 같은 책, p.26.  
 70) 김덕현, 1986, 같은 글에서 재인용.

71) 권세영, 1997, 「옷골 경주최씨 씨족마을의 공간구성과 주거의 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논문, pp.22-28.  
 72) 이규성, 1995, 같은 논문, p.30. 61.  
 73) 『慶北마을誌』中, 1991, p.161.  
 74) 『居昌郡史』, 1997, pp.1113-1114.

文獻

『東文選』 卷78, 79, 113.  
 『擇里誌』 卜居總論 山水.  
 『高麗史』 卷77, 百官志 2, 諸司都監各色.  
 『高麗史』 世家.  
 『高麗古都徵』 山水考 松嶽條.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3, 豊德郡, 古蹟.  
 『太祖實錄』 2年 2月 10日.  
 『成宗實錄』 16年 1月 8日.  
 『崇福寺碑文』  
 『鳳岩寺智證大師碑銘并書』  
 『東海寺事蹟記』, 『韓國佛教史學大事典』 1991, pp.1165-116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5, 榮川縣 山川條.  
 『永嘉誌』 卷6 古跡  
 『慶尙道邑誌』 安東府 古蹟條;  
 『鰲山誌』 「東松亭」  
 『星山誌』(국립도서관 한-62-167)  
 『晉陽誌』  
 『豊基邑誌』, 1997  
 『居昌郡史』, 1997, pp.1113-1114.  
 『慶北마을지』 中, 1991, pp.757-759. 『淸道郡誌』, 1991, p.880.  
 고승제, 1977, 『韓國村落社會史研究』, 일지사, p.264.  
 권세영, 1997, 「옷골 경주최씨 씨족마을의 공간구성과 주거의 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논문, pp.22-28.  
 김덕현, 1999, 「경상남도 향토문화의 이해」 『경상남도의 향토문화』 上, 정신문화연구원, p.13.  
 김두하, 1995, 『벽수와 장승』, 집문당, p.247.  
 양보경, 1987, 「조선시대 邑誌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p.33.  
 이규성, 1995, 「조선시대 영남지방 반촌의 형성과

-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영남대 건축공학과 박사  
논문, p.1.
- 이병도, 1947, 『고려시대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p.276.
- 이존희, 1990,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연구』, 일지  
사, p.39.
- 이수건, 1989,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p.26.
- 이수건, 1995,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p.29.
- 이지관, 『歷代高僧碑文』-新羅篇-, 가산문고, 1994,  
p.98, 109.
- 정승모, 1993, 「조선시대 石櫺의 건립과 그 사회적  
배경」 『泰東古典研究』 제10집.
- 진홍섭, 1978, 「異型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 한  
국미술사학회, 『考古美術』, pp.138-139.
- \_\_\_\_\_, 1980, 「異型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 補」,  
한국미술사학회, 『考古美術』, pp.146 · 147.
- 추만호, 1991, 「羅末麗初 禪宗思想史 研究」, 고려대  
사학과 박사논문, p.149.
- 최영준, 1990, 『영남대로』,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출  
판부, p.103.
- 최원석, 2000, 『영남지방의 비보』,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p.1
- 최원석, 2001, 「비보의 개념과 원리」, 민족문화연구  
제34호, p.133



## An Origin and Diffusion of the *Bibo* in Youngnam Region

Won-Suk Choe\*

### Abstract

In the dissertation, *Bibos* are discussed as landscape features in the geographical context of Youngnam Region.

The *bibo* tradition in Youngnam Region began with the incorporation of temple structures in Shilla and Kaya kingdoms, and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during the period of Unified Shilla. In Korea Dynasty, the diffusion of temple *Bibo* gained momentum, because Buddhism was worshipped as national religion. Then came a sea change in the *Bibo* repertoire with the replacement of Buddhism by Confucianism as an ideological prop for Choson Korea. The retreat of Buddhism led to the popularization of *feng-shui* motifs in *Bibo* strategy.

The centers of the diffusion of the logic of *bibo* were major towns such as Kyongju, Ahndong, Sangju, and Chinju. The diffusion process continued top-down to mid-sized towns, and to the bottom of small villages. What sustained the hierarchical diffusion of *Bibo* attributes was myriad of transportation lines. The

main artery of the diffusion in Korea Dynasty was that connecting Kaegyong to Kyongju. That same function was performed by the royal road running from Seoul through Sangju, Milyang, and to Tongrae.

In the age of modernization, the *feng-shui* and *Bibo* landscapes have lost their original aura. They have suffered from the ruthless attacks of the Enlightenment logic of science. However, the elan vital of *feng-shui* and *Bibo* are still visible and strongly felt in the countryside. From field experiences, one can notice that the *Bibo* landscapes are tightly integrated into the rural way of life. The durability of the traditional geomancy shows us the beauty of the harmonious interplay between Youngnam people and the nature.

**Key words** : *feng-shui*, *bibo*, *feng shui-bibo*,  
*buddhism-bibo*, diffusion

(2001년 8월 3일 접수)

---

\* Instruct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bibocws@hotmail.com)